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4:6-8
2026 년 7 월 5 일 오전 11 시

오직 한 분 하나님, 그의 증인들

< 주여 도우소서 >

오늘 우리는 왕이 없는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고대에는 왕이 없다는 것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목자 없는 양 떼와 같은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구한말 조선 조정에서는 왕이 없는 미국을 오랑캐와 야만국으로 여겨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조차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군 장교들과 정치 세력 내에서는 조지 워싱턴에게 왕이 되라는 의견이 많았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왕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헌데 유다는 다윗 왕조가 끊어진 채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로 살아 와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바벨론의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왕이요 구원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사 44:6).**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무이한 신이심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시며, 오직 자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의 증인들(사 44:6-8)

못하노라”(8 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자신의 유일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헛된 신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12 절). ‘그것을 만들며’에서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까. 배가 고프면 힘이 빠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치는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살아가기 위해 음식과 물이 필요한 존재가 다른 사람의 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무 신상은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15 절). 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 요리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까.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17 절). 이것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신보다 못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스타워즈 레고를 사줬더니, 아이가 레고로 다스 베이더를 만듭니까. 그리고는 다스 베이더에게 절하고 다스 베이더의 보호를 기대합니다. 다스 베이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스 베이더 레고를 두려워하며 복종합니다. 심지어 주변 친구들에게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너희도 이것을 믿어야 해”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내가

만든 장난감이 어떻게 너를 지켜 주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10 절)라고 물으시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결국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11 절).

2.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상이 신이라고 증언하며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9 절). 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찢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24 절).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의 역사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26 절).

하나님께서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황폐해진 유다 성읍들이 중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전도 다시 기초가 놓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28 절).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사람의

이름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사 왕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뒤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유다 포로들을 귀환시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8 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언할 증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행 17:24).

이 구절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 중 일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바울이 아텐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행 17:16). 아테네를 개역개정은 아텐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자들뿐 아니라, 당시 지성계를 대표하던 철학자들과도 복음을 놓고 논쟁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행 17:18).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당대 대표적인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행 17:19). 아레오바고는 파르테논 신전의 북서쪽에 있는 바위 언덕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들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행 17:21).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시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였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행 17:25).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며, 그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 17:31).

이와 같은 바울의 증언에 대해 돌아온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행 17:32). 비웃음과 판단 유보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행 17:34). 몇몇 사람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조롱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